

## [ 오피니언 ]

光日春秋

정종석



'논어'는 언제나 읽어도 탄복할만하다. 그래서 정자(程子)선생은 논어를 제대로 터득하면 기쁨에 겨워 "손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덤실당실 춤을 주게 된다"(手之舞之足之蹈之)고 했다. 지행합일로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이치에 달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名不正則言不順則事不成), 그리고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결국 형벌이 정확하지 못하고, 형벌이 정확하지 못하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된다"(事不成則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 논어에 있는 공자의 말씀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인정한다. 법과 질서란 대한민국에서 각자 자기하고 싶은 대로 살되,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후손들의 삶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그 원인과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이 틈을 타서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경제도 예측하고 정부도 비판하는 등 수많은 글을 올렸다.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가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경제나 금융 전문가나 학자, 언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었다. 그래서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이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전문가들 가

##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유감

문서에서도 이 글에 동조한 사람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글은 실제 누가 작성한 것인가가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은 혐의자를 체포하여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하였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의령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가릴 땅이지만,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의 실제 인물이 체포되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덧씌우려는 모

게 모든 책임을 덮씌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는 행위는 인류 역사에 많이 있지만, 그 원형은 기독교가 저지른 마녀사냥(witchhunt)이다. 마녀재판(witch trials)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12세기에 남프랑스에서 부패와 폐악과 불륜과 거짓으로 만신창이가 된 로마카톨릭에 대한 개혁운동을 탄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전 유럽을 훤힐고 1692년 미국 세일럼의 마녀재판이 거짓이라는 것이 재판한 사람들에 의해 실로 되기까지 장장 500여 년간 자행되었다.

처음에는 이단재판(inquisition)으로 시

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의 약점과 잘못을 부각시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만 집중하였지, 왜 그 많은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언론은 이보다 국민에게 더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도 없고 책임도 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혹시 이 사건이 정부나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네르바에게 모두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면하는 면책의식을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실로 걱정하지 못한 면을 본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으면서 부분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 잡아 그에

작하여 로마카톨릭에 대항하는 교리, 사상, 학문, 신앙 모두를 고문과 날조된 자백과 화형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다가 프로테스탄트까지 합세하면서 기독교와 다른 사람을 모두 마녀로 몰아 죽인 광기의 재난으로 화하였다. 여기서는 이단자나 마녀라고 낙인을 찍는 자와 낙인을 찍히는 자로 이분되어 결국 낙인을 찍는 자가 마음대로 살육을 하였다. 종교적인 이유에 더하여 정치, 경제적인 이유까지 합세하면서 무자비한 집단살인은 곧 모르게 진행되었다. 잔나르크도 갈릴레이도 캐플러의 모친도 모두 이 과정에서 수난과 희생을 치렀다.

이런 인간사냥은 무지한 자에 의한 것

이 아니었다. 이튿날 수도사, 신학자, 법학자 등 지식인들이 대거 가담하였고, 보령, 에드워드 코크, 프란시스 베이컨, 루터, 칼뱅, 멜란히톤, 에라스무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동조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과거사 문제가 국민들을 양분하고 반대 세력을 낙인찍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배경에도 이런 심리적 원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전문가와 정부가 먼저 스스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미네르바의 책임 여부를 논해야 명분이 있고 말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과 질서도 둘都要로 세울 수 있다. 공자의 가르침이다.

〈서울대 법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 '구도청 별관' 더이상亞전당 걸림돌 안돼야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2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별관 원형 보전을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양측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음달 10일부터는 하루에 1천1백만원씩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시공업체에 물어야 할 판이다. 문화전당 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도 표류하는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런 가운데 29일이 공대위측이 양측의 중재자로 나선 지역구 출신 민주당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중재안을 전달하기로 한 시한이어서 막판 조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재안에 담기게 될 '내용'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문화전당 공사 사업이 새로운

## 한심한 국회, 지금 주도권 다툼이나 할 땐가

설 연휴를 끝낸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주도권 청탁전에 돌입했다고 한다. 최근 발생한 '용산 참사'가 정국의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일정 협의에서부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의 우수성은 아랑곳 않고 주도권 다툼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작태가 한심하기만 하다.

여당은 용산 참사를 대한 민심의 기류가 당초 우려했던 만큼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경제 살리기를 앞세워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 인사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과 윤전시고에 대한 특검 요구 등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용산 참사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니 누가 신뢰 하겠는가. 용산 참사에 대한 민심이 생각하지 않다면 지휘 책임자 문책을 어울려 넣어가려는 행태도 그렇고,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발상도 한심하다.

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용산 참사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있으면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지면 된다. 쟁점 현안마다 과도하게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의 지지도가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해 "힘들어 못 살겠다"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 또 다시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국회 무용론'이 단순한 엄포가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상하고 '키코'에 들었다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환율하락에 대비해 선물환을 매도했다가 손해를 커졌다. 가계는 환율 상승으로 실질 소득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산값에 급매물로 내놓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환율이 외환당국민의 일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25.7%, 엔화 대비 40.7% 각각 절하됐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이로 인해 부도, 실업, 자살 등 극한의 상황으로 몸풀렸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나아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부존 자원이 없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해서 수출하는 대외 의존적 구조인 우리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다.

환율을 모르면 가계 운영이나 기업 경영 모두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김주정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윤성호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한 가지 약속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과 관련된 약속이며, 그 중에 운동, 금연, 금주가 있다. 금연에 대한 약속은 해마다 하고 또 쉽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대표적인 약속이다.

흡연은 암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미국 내 남성 암 사망자의 약 30%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여성 암 사망의 10%도 흡연과 관련이 된다. 불행히도 여성에서의 사망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흡연의 증가로 여성의 폐암사망이 유방암으

로 인한 사망을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흡연과 금연 사이에 갈등하는 분들을 위해 작심삼일이 아닌 영구적인 약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으로 이 글을 정리한다.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아직도 폐암은 다른 암보다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폐암생은 담배연기에게 대한 폭로 정도와 비례한다.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약 10배 폐암 발생률이 높으며, 두갑을 피우는 사람은 25배나 높다.

담배를 끊은 후에는 폐암의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하지만 그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담배연기의 2/3는 피우는 사람의 폐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기 중으로 퍼진다. 이를 환경적 담배연기라고 부르며,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담배연기의 많은 양을 흡수하고 대사하여야

〈조선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이래도 담배 안끊으시렵니까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금연을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번에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1년에 5% 미만이다. 그래서 반복적인 금연 시도는 금연 성공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금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인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이 있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다양한 정보와 금연 보조약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주가적으로 다양한 약물요법 및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통해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새해가 되면 금연해야 했다는 3일을 못 넘겼다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실패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그래도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해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어르신 140여 분들을 진료해 드리는 동안 어머님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워매, 내 새끼를 웃는가!' 하시며 바다와 함께 사신 세월만큼

기고

정종석

기다리던 의료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한 아침. 며칠 전부터 상자 여러 개에 의료기구와 약, 시력관, 현미경까지 병원 하나를 통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다시 한 번 점검 또 점검을 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 청정 해역을 가로질러 갈 청산행 배만 타면 되는데 웬지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먼 곳에 사시는 부모님께 우리 아이 세 명을 의료 봉사하는 날만 맡기고자 오시라 하고, 의료 봉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데 전날까지도 화창하던 날씨가 새

이나 딱딱하게 굽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 여기는 정감넘치는 곳이구나. 고향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음료수를 내어서 계속 어르신들에게 주시며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웃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느껴졌다.

우리가 6년 전 완도에 안과 전문병원이 없어 개업을 하게 되었을 때만 해도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마을 곳곳을 찾았더니 봄이 되면서 아이들이 놀고 노는 모습으로 되어있었다.

그때였을까? 마지막 배를 타고 나오는 귀향길에 유난히 거센 파도가 물어치며 배가 흔들리는 와중에 모두가 긴장하고 무서워 할 만한 한데 우리 의료팀은 어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사람 없이 웃음 띤 여유있는 모습으로 나를 수 있다.

모든 의료 봉사를 마치고 장비를 싣고 부두로 향하는 우리 일행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시던 어르신들이 청산면사무소 직원분들, 웃으으며 반겨주시던 면장님께 감사드려요.

〈원도밝은안과 원장〉

## 우리 포도주 홍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벽부터 빙방울이 떨어져 새벽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어려웠다. 완도읍에서 그것도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간다는 것, 로터리클럽 연합으로 가는 의료봉사가 아니고 우리 밝은 안과 심안경만 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눈이 아프셔도 진료를 받으려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들의 작은 손길이 도움이 될 거라며 나의 마음을 달래면서 청산행 배에 몸을 맡겼다.

난생 처음 가는 청산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멀었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다. 푸르고 거친 파도를 가르면 서 배가 청산도의 항구에 달자마자 태극기가 걸려있는 말끔하고 아름한 면사가 보인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어르신 140여 분들을 진료해 드리는 동안 어머님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워매, 내 새끼를 웃는다.

자극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관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해마다 가을철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열을 올리는 프랑스의 와인 보즐레 누보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의 포도농가들은 속상하고 짜증도 난다.

우리는 그들의 마케팅 전략을 배워야 한다. 우리 농촌 곳곳에서도 포도를 생산하고 농공단지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포도주를 홍보해 우리 나라 포도와 포도주가 더 많이 팔리도록 해주기 바란다. ▲심학수·광주시 북구 대총동

## 대중목욕탕서 문신 드러내 공포분위기 조성해서야

어나며 문신을 한번 슬쩍 쳐다봤던 모양이었다. 문신한 사람은 "뭘 봐? 문신 처음을 보나?"라며 눈을 부리렀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벌벌 떨며 서둘러 옷을 입고 목욕탕을 나가버렸다.

앞으로는 대중목욕탕과 짐월방에는 아예 문신을 한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는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욕탕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하지만, 인권도 지켜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활동

光州日報

회
---